

Thematic Radar

Ep. 57 본격화되는 트럼프의 서반구 정책

-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서반구내 영향력 확대 정책 본격화 조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쿠바 등을 지목
- 쿠바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임. 그린란드는 전략적 위치와 희토류 매장량이 미국에게 매력적
- 중국도 올해부터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자원 확보 경쟁 고조. 원자재 테마에 대한 관심 키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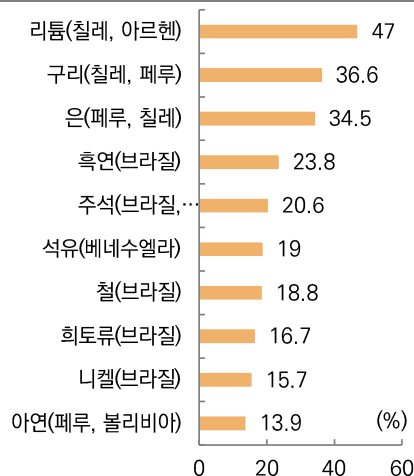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된 서반구내 영향력 확대 정책을 본격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베네수엘라로 원유를 확보했고, 서반구내 다른 핵심 자원에 대한 액세스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직후 개입을 시사한 그린란드와 쿠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린란드의 경우 전략적인 위치와 희토류 매장량이 트럼프의 관심을 이끄는 요인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국이 북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미국 동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린란드의 위치가 매력적이다. 2차 전쟁 후 트루먼 대통령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다. 여기에 탄브리즈 광산을 중심으로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도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높인다. 탄브리즈 광산의 매장량 중 27%가 특히 활용도가 높은 중희토류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원이다. 다만 그린란드가 NATO 회원국인 덴마크에 속해있는 만큼, 직접적 군사적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쿠바는 자원보다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 유권자들 중 마두로 작전에 찬성한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플로리다주 지지율 확보에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카스트로 정권을 반대하는 쿠바계 유권자들 중 65%가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작전으로 플로리다내 베네수엘라 출신 유권자들의 지지율 상승도 확인됐다. 플로리다는 10년 넘게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주지만, 지난 12월 민주당 후보가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며 공화당내 위기 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원의원 지역구도 28개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음으로 많다. 쿠바에 대한 압박 강화로 핵심 주인 플로리다내 지지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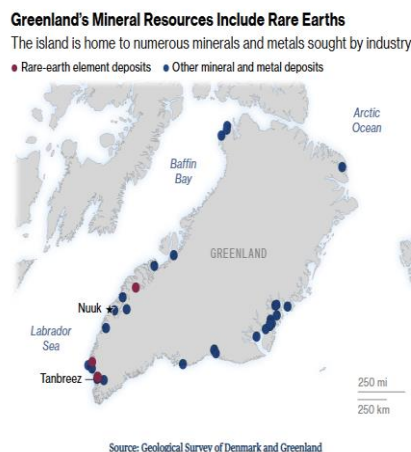
서반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적극적인 자원 확보 움직임이 이어지고, 중국도 올해부터 은, 텅스텐, 안티모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등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쟁 과정에서 전략적 수요가 높아지는 여러 원자재들과 채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림 1. 중남미내 핵심 원자재 매장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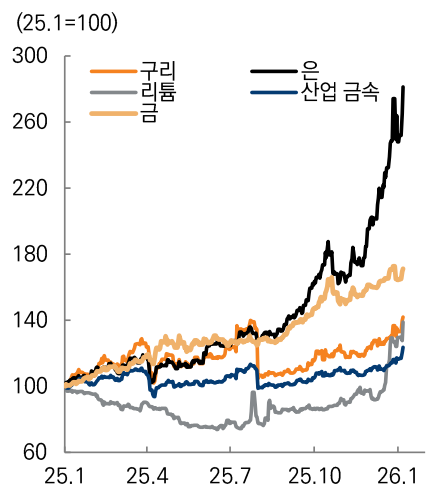
자료: ECLAC 2023,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그린란드내 매장된 광물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